

#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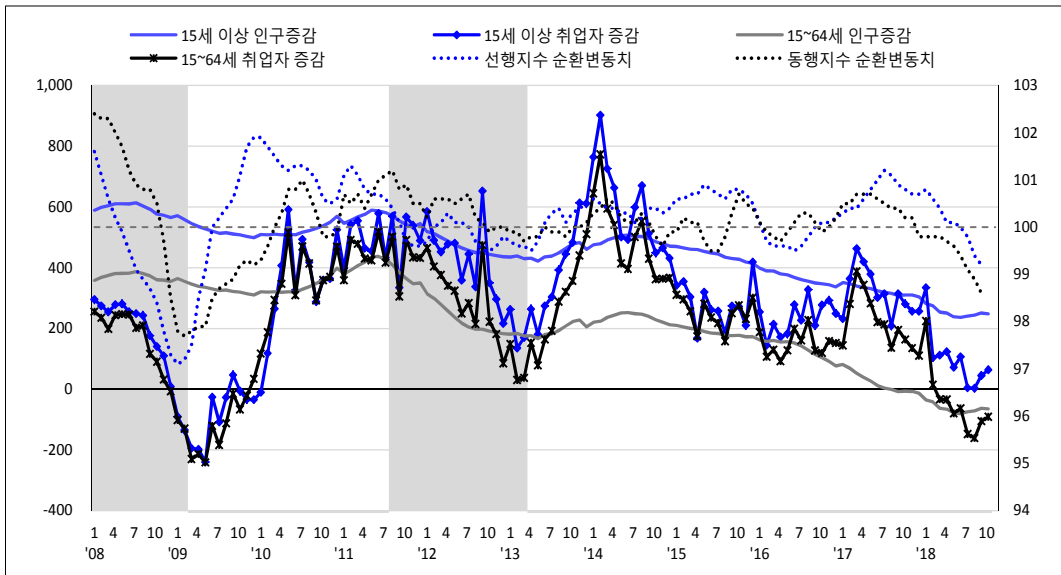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 I. 2018년 노동시장 개관

2018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7천 명 증가해 2017년 동기간 32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의 기저변동, 15~64세 인구의 빠른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던 고용은 건설 및 제조업 생산 둔화,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인구 증감 추이(15세 이상 및 15~64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 도			1~10월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생산가능인구	43,239	43,606	43,931	43,578	43,907	44,159
	(증가수)	(444)	(366)	(325)	(372)	(328)	(252)
	경제활동인구	27,153	27,418	27,748	27,420	27,757	27,907
	(증가수)	(318)	(265)	(329)	(262)	(337)	(150)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3.2	62.9	63.2	63.2
15세 이상	취업자	26,178	26,409	26,725	26,380	26,708	26,804
	(증가율)	(1.1)	(0.9)	(1.2)	(0.9)	(1.2)	(0.4)
	(증가수)	(281)	(231)	(316)	(224)	(328)	(97)
	(남성)	(99)	(85)	(127)	(72)	(137)	(3)
	(여성)	(182)	(146)	(189)	(151)	(191)	(94)
	고용률	60.5	60.6	60.8	60.5	60.8	60.7
	(남성)	(71.4)	(71.2)	(71.2)	(71.2)	(71.2)	(70.9)
	(여성)	(50.1)	(50.3)	(50.8)	(50.3)	(50.8)	(50.9)
	실업자	976	1,009	1,023	1,040	1,049	1,103
	실업률	3.6	3.7	3.7	3.8	3.8	4.0
	(남성)	(3.6)	(3.8)	(3.8)	(3.9)	(3.9)	(4.0)
	(여성)	(3.5)	(3.6)	(3.5)	(3.7)	(3.6)	(3.9)
	비경제활동인구	16,086	16,187	16,183	16,159	16,150	16,252
	(증가수)	(127)	(102)	(-5)	(110)	(-9)	(102)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705	36,839	36,860	36,835	36,862	36,798
	(증가수)	(187)	(134)	(21)	(143)	(27)	(-64)
	경제활동참가율	68.4	68.7	69.2	68.7	69.3	69.4
	고용률	65.9	66.1	66.6	66.0	66.6	66.6
	(남성)	(75.9)	(75.9)	(76.3)	(75.8)	(76.2)	(75.9)
	(여성)	(55.7)	(56.1)	(56.9)	(56.1)	(56.8)	(57.1)
취업자	24,192	24,342	24,559	24,312	24,548	24,501	
(증가수)	(249)	(149)	(218)	(148)	(237)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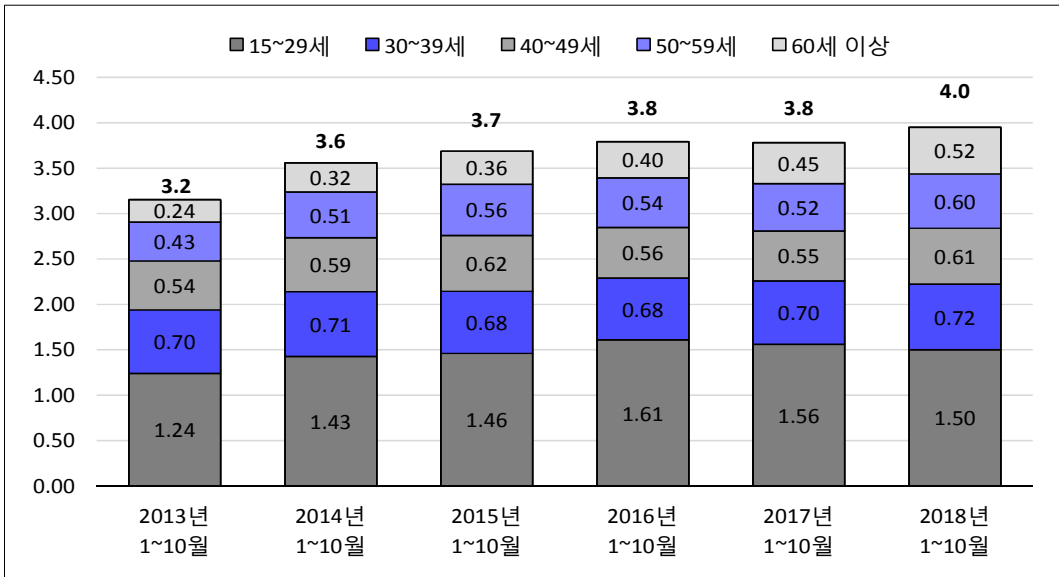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자도 2018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4천 명 증가했고(2017년 10천 명 증가), 실업률도 0.2%p 증가했다(2018년 1~10월 4.0%). 올해 실업 증가의 특징은 지난 몇 년간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청년층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자영업자) 등 올해

고용이 둔화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주로 40, 50대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전체 실업률 중 연령대별 기여율을 보면, 청년은 실업률에 감소 방향으로 기여했지만(15~29세 -0.06%p, 30대 0.02%p),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실업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각각 0.06%p, 0.08%p, 0.07%p).

[그림 2]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1~10월 평균)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II. 2018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40대, 50대 중심으로 나타난 고용둔화

2018년 들어 40대와 50대 연령층의 고용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40대 취업자는 2018년 1~10월 평균 114천 명 감소(인구 99천 명 감소, 고용률 79%로 0.4%p 감소)했고, 실업자는 19천 명 증가(실업률 2.5%로 0.3%p 증가)하였다. 50대 취업자는 인구 증가(71천 명 ↑)로 인해 취업자가 47천 명 증가하긴 했으나 고용률은 0.3%p 감소(1~10월 평균 75.1%)하였고, 실업률도 0.3%p 증가(1~10월 평균 실업률 2.6%)하였다.

40대는 임시직(56천 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천 명 감소)에서 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임시직은 제조업(30천 명 감소, 생산직 중심), 도·소매업(24천 명 감소, 판매직 중심)에서 주로 감소하였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12천 명, 생산직 중심), 도소매업(16천 명, 판매직 중심)에서 주로 감소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중심으로 고용이 줄었다(240천 명 감소: 제조업, 도·소매업, 생산직, 임시직 중심). 40대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9천 명 증가했는데, 전직 제조업 실업자가 7천 명 증가하여 제조업의 부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50대는 제조업(3천 명 증가)과 건설업(13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생산가능인구	
	연도		1~10월				2018. 1~10	2016. 1~10	2017. 1~10	2018. 1~10		2018. 1~10
	2016	2017	2016. 1~10	2017. 1~10	2018. 1~10							
전 체	231	316	224	328	97	26,804	372	328	252	44,159		
15~29세	43	-1	51	8	-17	3,903	-13	-78	-134	9,157		
15~19세	-1	3	-2	9	-46	209	-53	-141	-165	2,771		
20대	44	-3	53	-1	29	3,694	40	64	31	6,387		
20~24세	0	-34	3	-28	-80	1,296	10	-18	-65	2,962		
25~29세	44	30	50	27	109	2,398	31	81	97	3,425		
30대	-57	-29	-59	-29	-53	5,588	-109	-102	-117	7,387		
30~34세	-156	-139	-156	-141	-84	2,516	-175	-189	-149	3,337		
35~39세	98	110	98	112	31	3,072	66	87	32	4,050		
40대	-59	-50	-56	-47	-114	6,672	-87	-79	-99	8,450		
40~44세	-123	-139	-119	-139	-107	3,046	-164	-149	-134	3,933		
45~49세	64	89	63	92	-7	3,626	77	70	35	4,517		
50대	82	152	78	155	47	6,335	120	96	71	8,434		
50~54세	-85	-1	-92	3	-34	3,203	-105	-22	-23	4,125		
55~59세	167	153	171	152	81	3,132	225	118	95	4,308		
60세 이상	223	242	209	241	233	4,306	460	491	530	10,731		
60~64세	140	144	133	150	89	2,003	232	190	215	3,371		
65~69세	46	19	53	8	76	1,087	110	-9	125	2,354		
70세 이상	36	79	23	83	69	1,217	119	311	191	5,0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2017년 1~10월 평균 제조업 40천 명, 건설업 39천 명 증가). 상용직은 129천 명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였다(각각 25천 명, 28천 명, 36천 명 감소). 50대 실업자는 22천 명 증가했는데 주로 일용직 실업자(16천 명 증가)로 건설업, 생산직 위주로 나타나 올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둔화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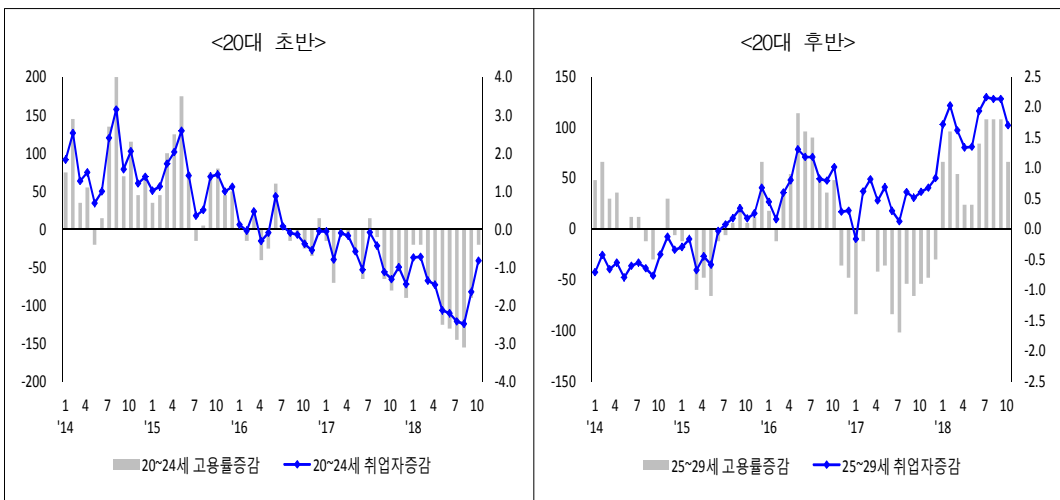
## 2. 20대 후반 고용률 증가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감소했는데, 이는 10대 후반(1.2%p 감소)과 20대 초반(1.7%p 감소)의 고용률 감소 때문으로,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후반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1-10월 평균 70.0%)하였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1~10월 평균 40천 명 감소), 음식·숙박업(26천 명 감소)에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률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다(15~24세 3분기 1.6%p 감소, 10월 26.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20대 후반 취업자는 109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4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도 9.0%로 0.5%p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1~10월 평균 32천 명 증가, 상용직, 전문직 중심), 도·소매업(19천 명 증가)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10월 평균 -11천 명, 임시직·장치 기계 직종 위주), 사업지원임대업(-9천 명), 교육서비스(-10천 명)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림 3] 20대 청년층 취업자 및 인구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경력단절연령대 기혼 여성 고용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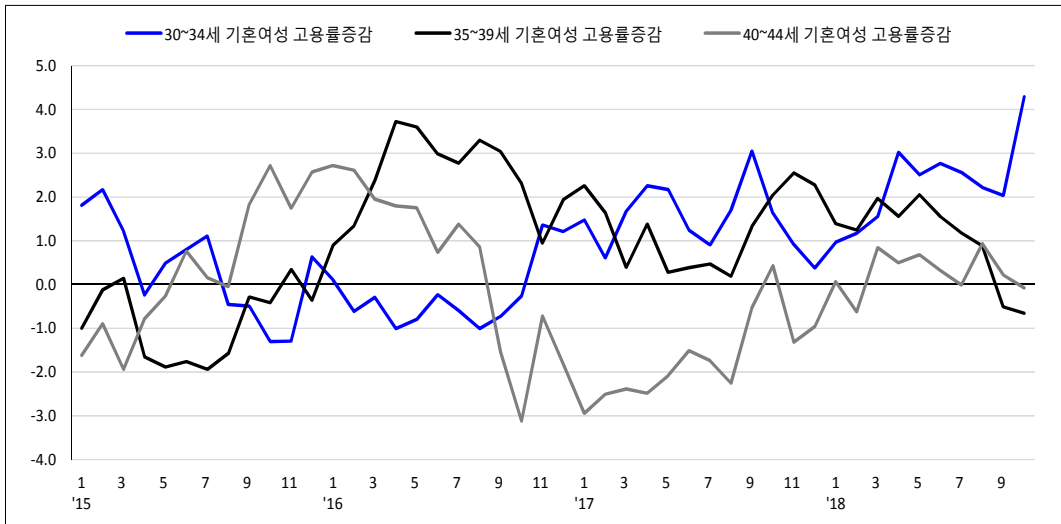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은 고용률이 52.3%로 2.3%p 증가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30대 초반 미혼 여성은 5천 명 증가했는데 취업자는 6천 명 감소하여(기타 개인서비스 위주), 고용률은 1.5%p 감소했다.

30대 후반 기혼 여성의 최근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9월 0.5%p, 10월 0.7%p 감소), 1~10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는 12천 명 증가하여 고용률이 1.1%p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복지업(10천 명 증가), 금융·보험업(8천 명 증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조금씩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 없는 자영업(12천 명 감소), 무급가족종사자(7천 명 감소)는 감소했지만 상용직(30천 명 증가)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은 최근 고용률이 감소하긴 했지만(10월 0.1%p 감소), 1~10월 평균 고용률은 증가했다(취업자 22천 명 감소, 인구 45천 명 감소, 고용률 0.3%p 증가). 상용직 취업자가 증가하고(24천 명 증가), 전년도의 고용률 감소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실제 이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큰 연령대가 된 특징상 장시간 근로 완화 같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의 문화변화가 이들 연령대 기혼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4] 30~4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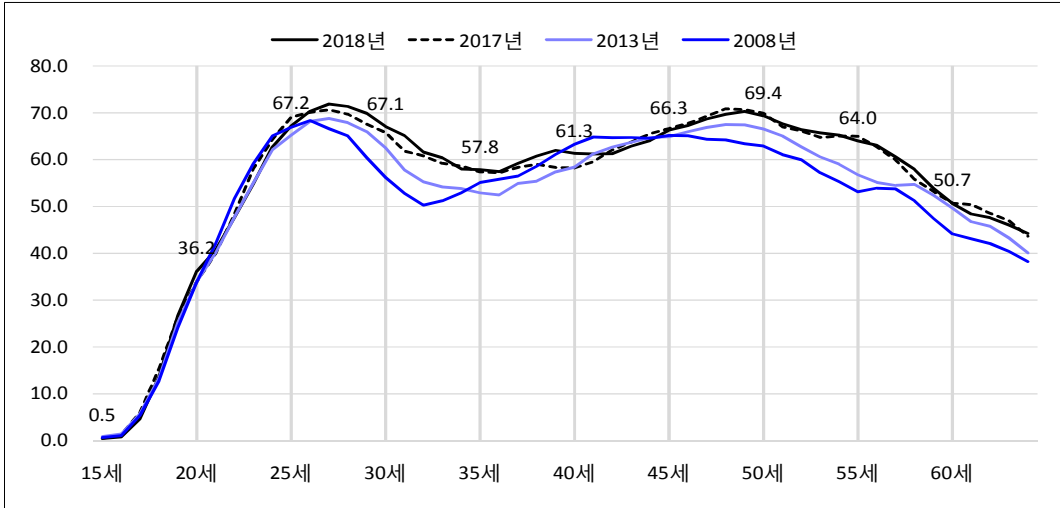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① 미혼, ③ 사별, ④ 이혼은 '무배우자'로, ② 유배우는 '기혼 유배우자'로 구분한다.

[그림 5] 여성의 연령별(1세 단위) 고용률 변화 추이(M-curv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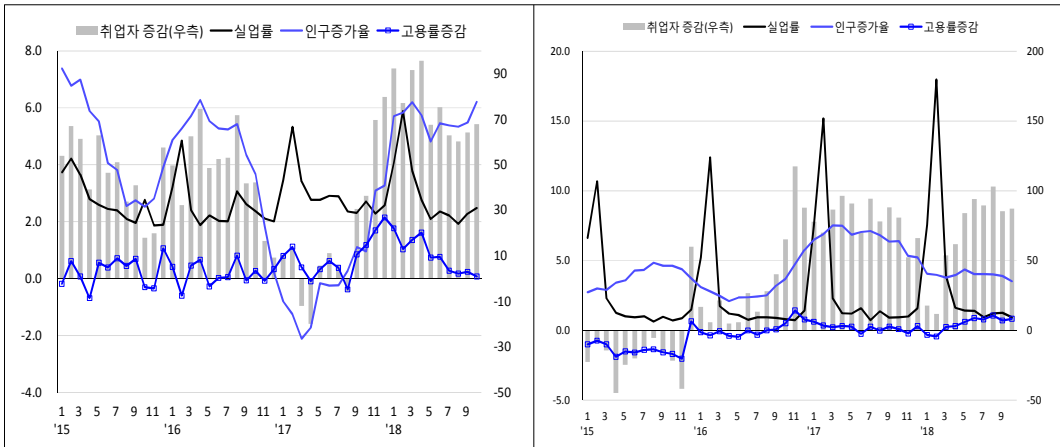
주 : 각 연령에 ±1세를 포함해서 평균한 수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발

경제활동의 주축인 15~64세 인구의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44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그림 6] 65~69세(좌측) 및 70세 이상(우측) 고용지표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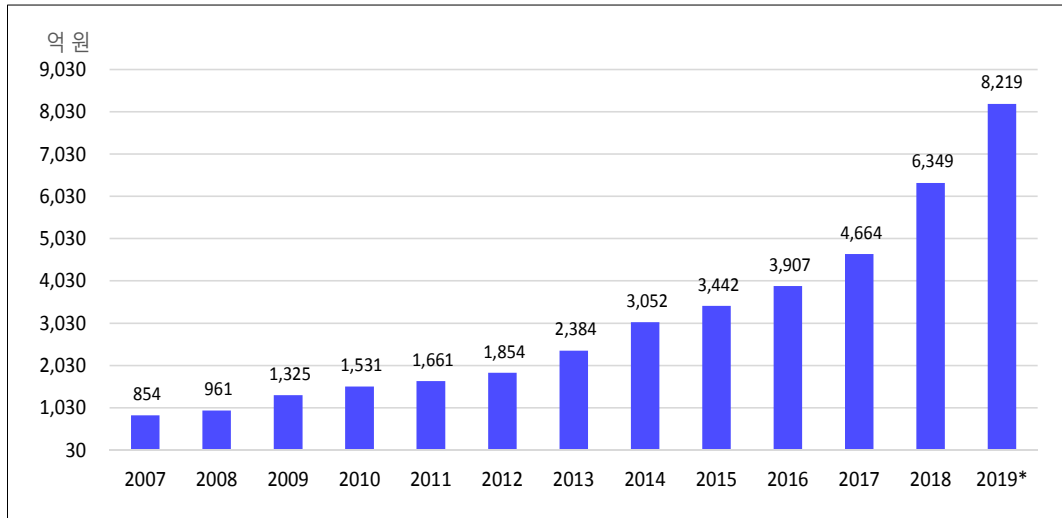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0.6%p 증가한 31.3%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10월 평균 취업자가 91천 명 증가했지만 고용률이 30.7%로 2016년과 동일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냈던 베이비붐 세대(특히 전후출산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규모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대 후반은 보건·복지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동산업에서도 취업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9천 명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중이 60대 후반보다 높다. 2019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정부예산이 정부안 기준 8,2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871억 원 높아져, 내년에도 고령층 경제활동은 활발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주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각 연도 정부안 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5. 고용둔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임시, 일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상용직 증가 흐름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42천 명 증가해 전년보다 둔화된 모습이다(2017년 265천 명 증가). 임시직은 132천 명 감소하였는데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83천 명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소매업의 임시직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3분기 전년동기대



비 -44천 명, 10월 -66천 명). 일용직은 전년동기대비 72천 명 감소했는데, 2018년 2분기까지는 숙박음식점업(-61천 명), 건설업(-34천 명)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일용직 감소폭은 완화되어 10월에는 13천 명 감소하였다(건설업 +33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7천 명, 도소매업 -23천 명).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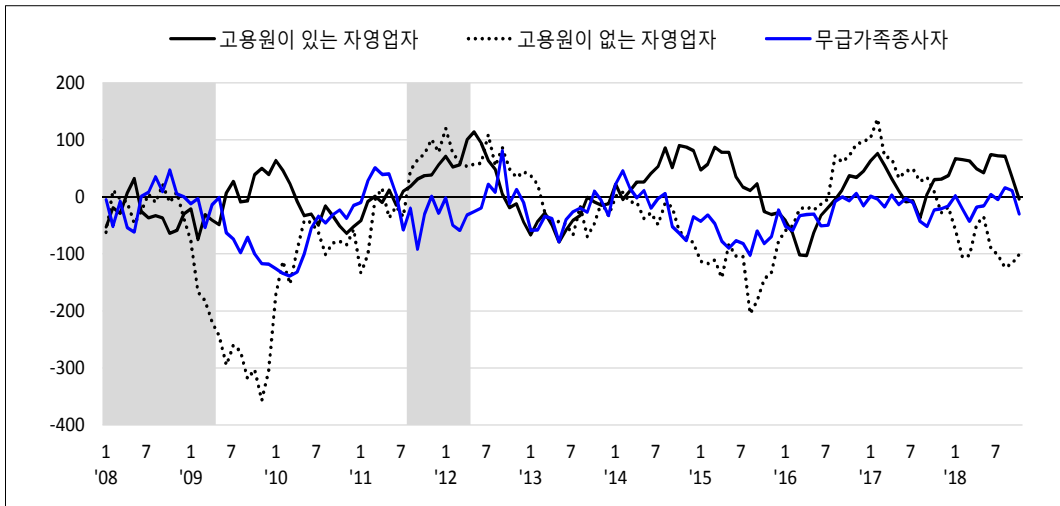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 도			1~10월			취업자 수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2018. 1~10월
전 체	281	231	316	224	328	97	26,804
임금근로자	444	267	265	292	265	142	20,044
상용직	397	346	366	365	361	346	13,744
임시직	45	10	-132	38	-139	-132	4,859
일용직	2	-88	31	-111	43	-72	1,441
비임금근로자	-163	-36	51	-69	63	-45	6,76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9	-25	24	-38	22	53	1,65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6	17	44	2	57	-88	3,999
무급가족종사자	-66	-27	-17	-32	-16	-10	1,1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8〕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0월 평균 53천 명 증가했는데, 3분기까지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다.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에는 4천 명 감소해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0월에는 주로 건설업(-13천 명)과 숙박음식점업(-24천 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1~10월 평균 88천 명 감소했는데, 도·소매업(56천 명 감소)과 제조업(12천 명 감소), 건설업(17천 명 감소)에서 주로 감소하고 있다.

## 6. 제조업 고용 감소

산업별 고용<sup>2)</sup>을 살펴보면, 2017년도 내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8년 1월 106천 명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어 4월부터 감소 전환한 결과, 1~10월 평균 46천 명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도 건설경기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7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이나 2018년 3분기(2분기 16천 명, 3분기 45천 명 증가) 들어 둔화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은 지난해 1~10월 증가폭(232천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6천 명 증가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은 상반기에 나타난 급격한 취업자 감소세(7월 저점 127천 명 감소)에서 두 달 연속

〈표 4〉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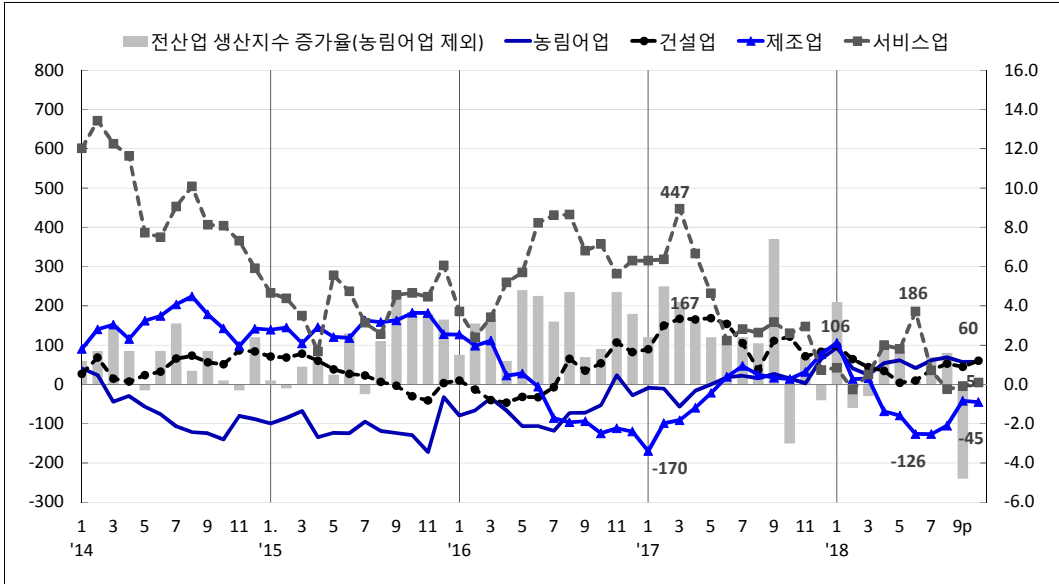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취업자 전체	280	231	316	224	328	97
농림어업	-109	-65	6	-77	1	56
제조업	146	-21	-17	-2	-32	-46
건설업	25	15	119	-1	127	45
서비스업	208	299	209	299	232	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본문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는 <부표 2> 참조.

[그림 9] 산업별 취업자 증감(좌축) · 전산업 생산지수 증가율(우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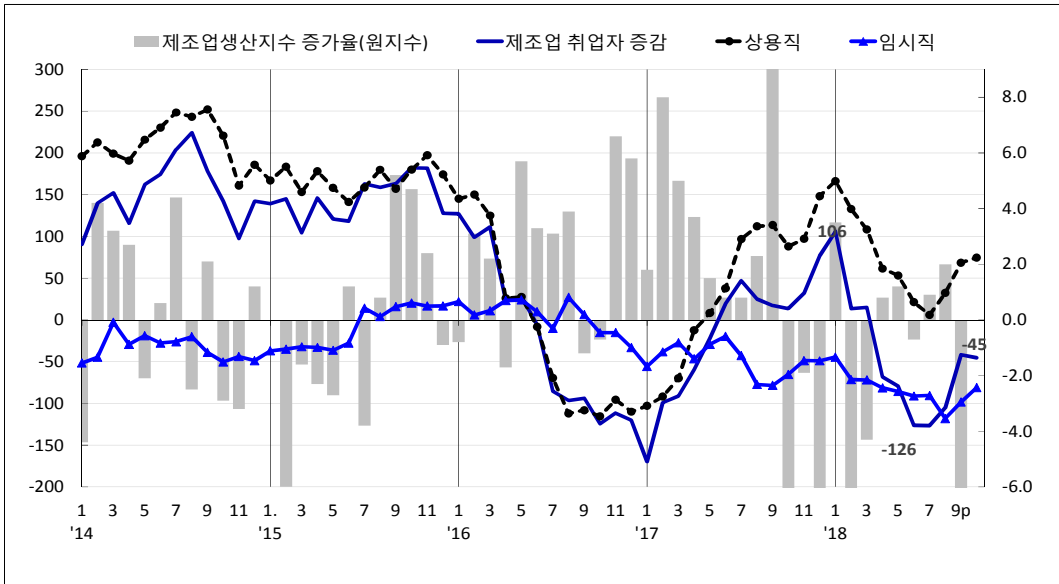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전산업생산지수」, KOSIS.

[그림 10] 제조업 취업자 증감(좌축) · 생산지수 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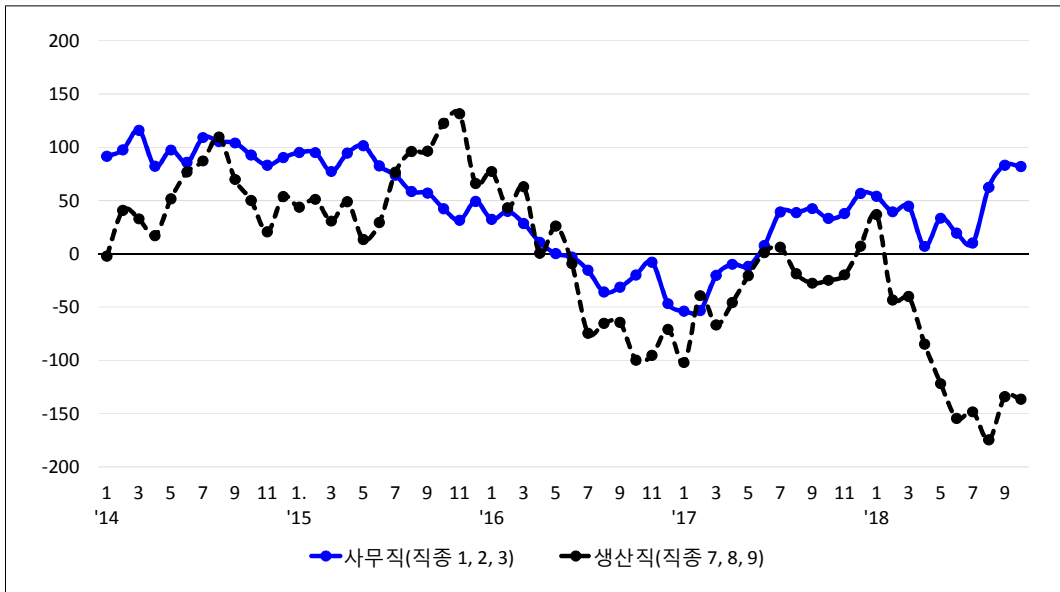
다소 완화된 모습(10월 45천 명 감소)이나 여전히 둔화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지표 측면에서 생산과 출하는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직 중심의 고용 감소(1~10월 평균 100천 명 감소)가 연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일시적 생산수요 대응 목적으로 활용되는 임시직의 감소가 컸다(83천 명 감소).

생산지표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통계 등을 종합해보면 조선업이 있는 기타운송장비, 구조조정이 있었던 자동차가 부진한 가운데 섬유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 영향을 받는 금속가공업, 자동차의 영향을 일부 받는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도 둔화된 모습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올해 고용증가가 나타났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 등 국내 생산 둔화로 향후 고용개선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 HMR 성장세가 가파른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용 장비와 중국수출이 활발했던 기계산업을 비롯, 수출이 활발한 석유화학, 화장품 등 화학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 면에서 파급력이 큰 기계산업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면 현재의 고용성장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조업 고용의 또 다른 특징은 화이트칼라 직업군은 고용이 증가하나 생산관련 직업군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둔화되어 있으나 제품개발, 마케팅, R&D 등 본사기능은 활발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림 11] 제조업 전체 사무직 및 생산직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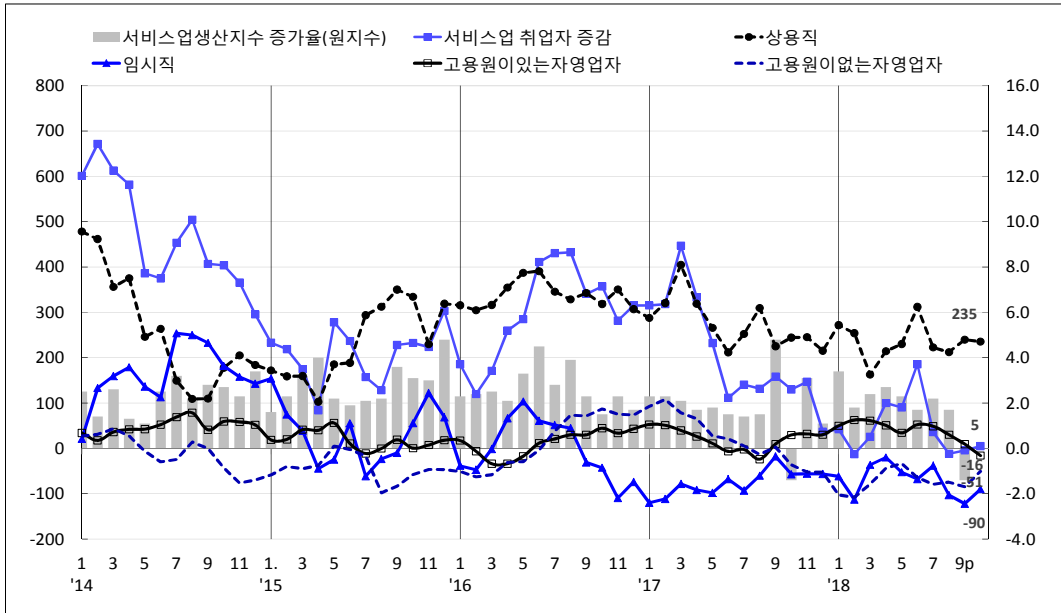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7. 전통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난 서비스업 고용 위축

서비스업은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 추세에 2017년 4분기부터 시작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감소가 더해지면서 2018년 1~10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46천 명)이 크게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110천 명)와 20대 초반(-71천 명)의 감소폭이 컸으며, 직종별로는 판매 종사자(-76천 명)와 단순노무자(-44천 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2017년 1~10월 평균 64천 명 증가, 2018년 동기간 93천 명 감소)에서 주로 감소하였다.

[그림 12]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좌축) · 생산지수 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먼저 고용이 증가한 산업부터 보면, 생산이 활발한 보건 및 사회복지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컸고, 정규직화, 공무원 채용, 노인일자리아업 확대 이슈가 있는 공공행정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났다. 정보통신업(47천 명)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이 9월까지 평균 3.5%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2분기 16천 명, 3분기 20천 명)도 꾸준히 나타나 이 분야의 고용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도 생산증가(6.4%)와 함께 고용(51천 명)이 증가했는데, 은행권보다는 주로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208	299	209	299	232	46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234	339	275	340	284	235
	임시직	34	-2	-76	16	-80	-71
	일용직	-9	-63	-20	-67	-18	-6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12	21	6	19	3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4	15	21	3	35	-72
	무급가족종사자	-25	-1	-12	0	-8	-24
성 별	남성	9	91	64	89	70	-22
	여성	200	208	145	210	162	67
연령별	20대	47	48	-9	55	-6	27
	20~24세	46	13	-32	11	-24	-71
	25~29세	1	35	23	44	18	98
	30대	-78	9	-20	6	-19	-33
	40대	-45	3	-16	0	-1	-110
	50대	111	80	87	83	87	41
	60세 이상	169	166	161	163	158	160
규모별	10인 미만	32	60	41	46	64	-93
	10~300인 미만	151	179	163	183	159	110
	300인 이상	25	60	4	70	8	28
직종별	전문가	59	62	127	55	135	67
	사무종사자	16	138	70	148	75	63
	서비스종사자	31	73	57	75	56	23
	판매종사자	-31	-17	-32	-19	-21	-76
	단순노무종사자	137	19	24	16	21	-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는 1~10월 평균으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77천 명 증가했으며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돌봄 및 보건 관련직이 포함된 서비스종사자(61천 명)와 청소 및 경비가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43천 명)의 증가가 나타났다. 20대 후반(39천 명)과 30대(25천 명)의 고용증가, 보건관련 전문직이 포함된 전문가(31천 명)의 고용증가로 미루어 보아 고령화로 인한 보건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보건업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산업 고용증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3

〈표 6〉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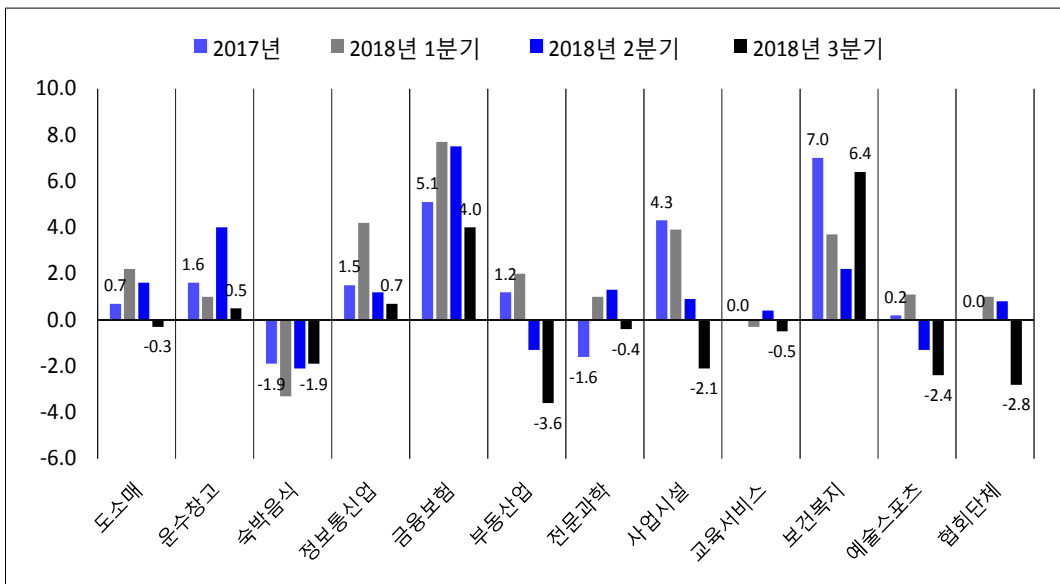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서비스업	208	299	209	299	232	46
도매 및 소매업	-18	-63	41	-70	45	-73
운수 및 창고업	0	-2	-22	0	-26	1
숙박 및 음식점업	77	96	-3	97	6	-45
정보통신업	55	10	-1	7	4	47
금융 및 보험업	-53	4	-9	3	-11	51
부동산업	7	21	57	18	62	-15
전문·과학 및 기술	21	46	-9	52	-8	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87	60	-17	66	-17	-58
공공행정·국방	-22	55	55	60	49	59
교육서비스업	6	27	45	22	56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72	80	61	80	63	118
예술·스포츠	30	-21	22	-28	22	19
협회 및 단체, 수리	-25	-8	-3	0	-6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3〕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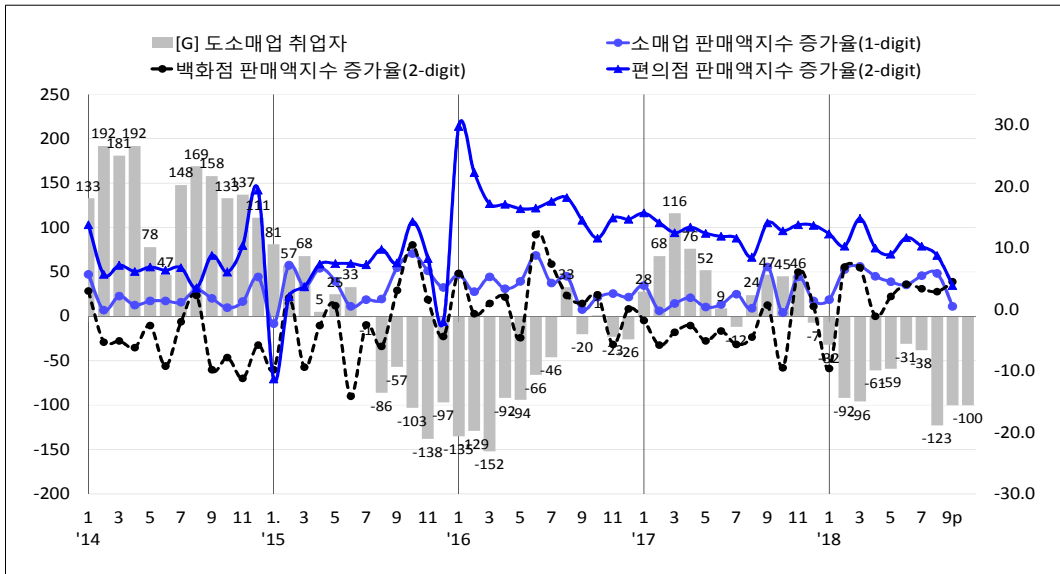
분기 사회복지서비스업 51천 명, 보건업 32천 명)나 사업체 노동력조사 종사자 수(3분기 사회복지서비스업 57천 명, 보건업 45천 명) 증가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나 규모는 경찰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공공행정부문 취업자는 2018년 1~10월 평균 59천 명 증가하였는데, 최근 들어 작년 기저변화로 인해 증가세(2분기 87천 명, 3분기 41천 명, 10월 31천 명)가 둔화되었다. 임시직(24천 명) 증가폭도 컸지만 상용직(37천 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직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26천 명), 상용직은 20, 30대(23천 명, 34천 명) 위주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내수서비스 부문인 도소매, 숙박음식을 포함해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했다. 부동산업도 감소했는데(-15천 명) 이는 건설경기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천 명 증가)은 제조업 부진, 건설업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고용이 둔화된 상태이다.

[그림 14]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및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8년 1~10월 평균 73천 명 감소했다. 2017년 동기간 45천 명 증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인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천 명)가 많이 감소했고 임시직(-32천 명), 일용직(-26천 명) 고용도 부진했다.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주로 감소했고(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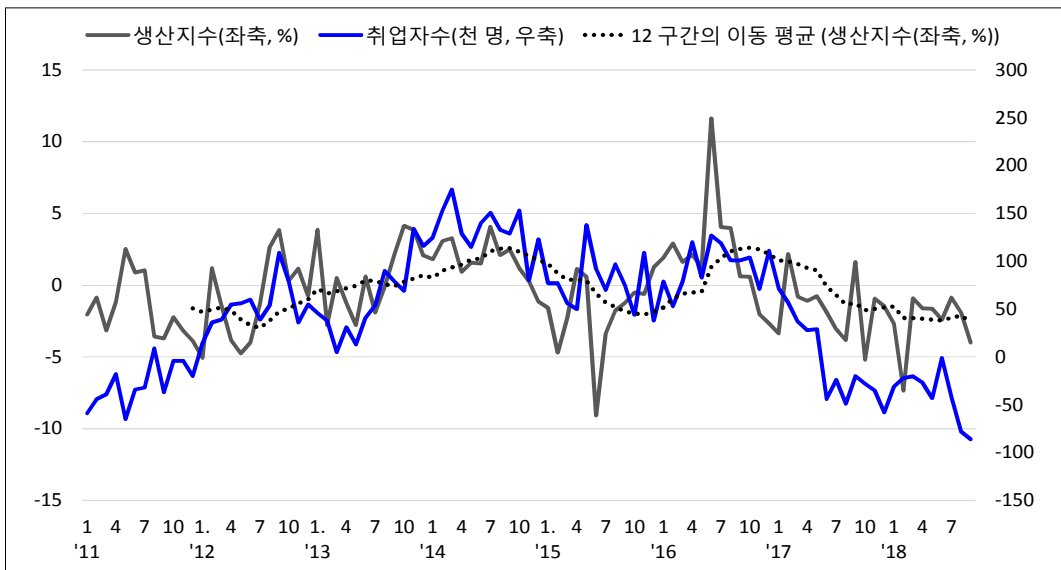
-51천 명, -73천 명) 규모별로는 1~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감소했다(-66천 명). 소매판매는 면세점 생산이 크게 증가(53.6%)했고, 편의점 생산도 증가를 이어갔지만(13.0%), 최근 들어 둔화(8월 8.8%, 9월 3.9%)되는 추세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는 기존 둔화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 중이다. 기존 소매업 고용을 이끌었던 편의점, 기타전문소매점 등이 주춤한 가운데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면세점, 온라인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소매판매 증가가 고용증가로 귀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은 기저변동으로 이상치를 나타낸 9월을 제외하면 연내 꾸준한 생산증가(1.2%)가 나타났으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완성차 판매 부진(-4.1%)으로 부정적 업황이 고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4천 명)는 최근 감소폭(10월 -97천 명)이 확대되었다. 이 산업의 고용 규모와 변화는 숙박업보다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 의해 좌우되는데, 2016년 이래 음식주점업 생산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 특히 대부분의 음식점업이 속한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는 것, 비알콜 음료점 생산도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 등이 고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17천 명), 일용직(-45천 명)에서 감소폭이 컸고, 줄어든 임시·일용직은 15~19세(-21천 명) 청년이나 50대(-31천 명)에 집중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

[그림 15]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및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10월 평균 18천 명 증가했으나 10월 감소 전환(-24천 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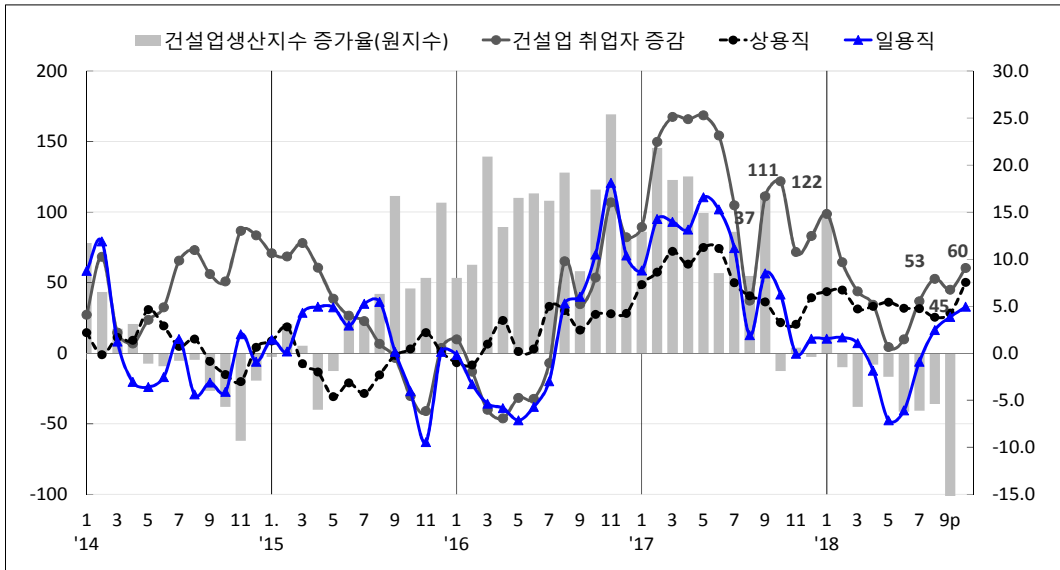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 고용은 2분기(-33천 명)부터 크게 감소폭(3분기 -116천 명)을 늘리면서 1~10월 평균으로는 58천 명 감소했다. 주로 60세 이상(-33천 명), 단순노무직(-36천 명), 기능원(-15천 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업종의 기능원에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관련된 파견 직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업종의 최근 상황을 반영한 고용감소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단순노무직은 대부분 청소 및 경비관련 용역, 파견이어서 정규직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8. 건설업 취업자 둔화

국내 건설수주(160조 원 상회), 민간 주택수주(60조 원 상회) 등 2017년 대부분의 건설경기 지표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sup>3)</sup>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건설수주가 2분기 9.2%, 3분기 6.4%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건설업 업황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취업

[그림 16] 건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3) 대한건설협회.

자 증가 규모도 2분기 16천 명 수준으로 까지 떨어졌지만 3분기에는 다시 45천 명으로 커지면서 아직까지는 하반기 공사로 전문건설업 등 고용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시차가 약 1년 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는 2019년 업황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III.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전망

2018년 들어 동행지수, 선행지수 같은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뚜렷한 경기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전망기관들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하여 수정 전망하였다. 노동시장도 2017년의 개선 흐름에서 2018년 들어 완전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노동시장 둔화에는 연초에 많이 언급된 인구 둔화 외에도 건설업의 고용 호황이 지난해로 마감되고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 점, 제조업의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을 포함해 섬유, 의복, 고무 플라스틱, 금속가공 등 제조업 여러 산업에 걸친 생산둔화 영향으로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의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 점, 경기가 하반기로 올수록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특히 전통 내수서비스업 위주로 고용이 좀 더 위축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고용감소폭은 8월 이래 더 커져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지표가 전년동월비로 볼 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표 7〉 한국은행 2018년 및 2019년 경제전망

(단위: %, 만명)

	2018. 1				2018. 4				2018. 7				2018. 10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8	3.7	3.7	3.6	3.8	3.7	3.8	3.7	3.8	3.7	3.8	3.7	3.8	3.6	3.7	3.6
경제성장률	3.2	2.8	3.0	2.9	3.0	2.9	3.0	2.9	2.9	2.8	2.9	2.8	2.8	2.6	2.7	2.7
민간소비	2.9	2.5	2.7	2.7	3.1	2.3	2.7	2.7	3.1	2.2	2.7	2.7	3.2	2.3	2.7	2.7
수출	3.0	4.2	3.6	3.5	2.8	4.3	3.6	3.6	3.0	4.0	3.5	3.5	2.8	4.2	3.5	3.2
취업자 수	28	33	30	29	21	30	26	29	14	21	18	24	14	4	9	16
실업률	4.1	3.4	3.8	3.7	4.1	3.4	3.8	3.7	4.1	3.5	3.8	3.8	4.1	3.6	3.8	3.8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각월.

〈표 8〉 고용탄력성 추이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4	0.707	0.997	0.813	1.991	1.340
2015	0.389	1.846	0.409	0.516	0.589
2016	0.301	-0.184	0.659	0.199	0.585
2017	0.391	-0.090	0.532	0.855	0.445
2018p	0.132				
2014. 1/4	0.842	0.635	1.018	1.452	1.001
2/4	0.626	0.748	0.880	2.108	1.605
3/4	0.692	1.536	0.759	2.274	1.557
4/4	0.638	1.591	0.591	2.619	1.307
2015. 1/4	0.510	2.609	0.398	2.045	0.891
2/4	0.402	3.076	0.387	1.165	0.584
3/4	0.304	1.650	0.342	0.375	0.423
4/4	0.363	1.329	0.517	-0.246	0.446
2016. 1/4	0.267	1.168	0.343	-0.420	0.514
2/4	0.227	0.123	0.574	0.113	0.631
3/4	0.359	-1.200	0.884	0.523	0.549
4/4	0.380	-0.866	0.921	0.717	0.623
2017. 1/4	0.477	-0.539	1.172	5.353	0.724
2/4	0.491	-0.119	0.657	2.247	0.414
3/4	0.277	0.103	0.306	-0.154	0.371
4/4	0.357	0.331	0.231	-0.222	0.361
2018. 1/4	0.252	0.371	0.032	-1.122	0.385
2/4	0.132	-0.632	0.220	-0.754	1.345
3/4	0.032	-0.717	0.015	-2.118	1.057

주 : 2018년 연간 고용탄력성은 <표 9>의 하반기 고용전망을 전제한 수치임.

2018년 3분기 고용탄력성은 11월 속보치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지난 3년간 제조업 고용 축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선업 경기가 올해 말 저점에 도달할 것이 기대되는 점, R&D, 마케팅, 제품개발 등 제조업 본사기능의 활발함을 보여주는 화이트칼라 고용이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제조업 고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성상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성장세 향방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제조업 고용증가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 간호간병통합 등 고용증가 가능성이 높은 여건에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일자리사업 확대 등 고용증가가 이어질 공공행정, 올해 상반기 고용이 크게 감소해 내년도 상반기 기저가 나타날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서비스분야는 내년에도 어느 정도 고용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정보통신, 금융보험업 등 비전통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증가가 나타났고, 이들 부문에서 나타나는 고용성장의 상당부분은 소프트웨어 산업, 핀테크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의 증가로 추측되어 내년에도 고용개선의 지속 가능성이 기대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증가폭이 이들 산업에서 고용보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 실제 고용지표 개선으로 나타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한식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금융위기 이래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성장을 이끌었던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한 이들 전통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성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편의점이 있는 종합소매업의 고용이 주춤한 가운데 의류 등 온라인화에 특히 취약한 소규모 전문 소매점포 취업 감소가 크게 나타난 점도 도소매업 고용증가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커피전문점 확대를 이끈 선호 변화나 맞벌이 증대로 인한 외식 증대, 소규모 가구화에 따른 집 근처 소비 증대 등 기존 트렌드는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향방에 따라 다소간의 개선 흐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하반기 공사가 진행되어 전문건설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중인 건설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고용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문별로 볼 때 올해보다 고용에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경기여건을 보아도 한국은행의 전망을 비롯해 세계은행, OECD,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전망이 올해보다 0.1% 내외의 감소와 증가 정도 수준의 전망을 보여 내년도 급격한 경기위축 가능성은 낮으나, 내년 경기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용을 크게 개선할 만한 힘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연간) 전망치를 10월에 2.7%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했으며, 2019년 경제성장률도 2.7%로 예측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금년 중에는 민간소비(2.7%)와 수출(3.5%)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고, 2019년에도 수출(3.2%)과 민간소비(2.7%)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 같이 노동공급을 자극하면서 소득,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직접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지출이 내년에 좀 더 본격화되며, 여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이 이루어진

다면 올해보다 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서비스부문에서는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부문의 비용압박 완화를 위한 정부노력이 일정한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9년 취업자는 12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95천 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업률과 고용률도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전제된 전망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요인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하여 임시일용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단기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인구 둔화를 감안하면 어디까지나 둔화된 흐름이지 금융위기 같은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정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표 9〉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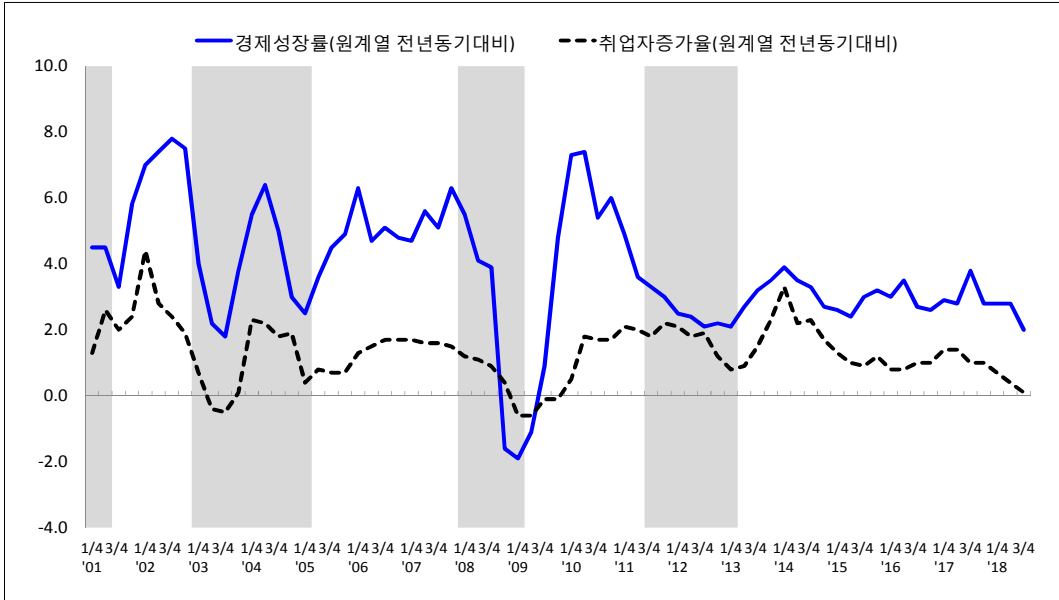
(단위 : %, 천 명)

	2018			2019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8	2.6	2.7	2.7	2.6	2.7
15세 이상 인구	44,115	44,250	44,182	44,355	44,489	44,422
경제활동인구	27,794	27,996	27,895	27,900	28,168	28,034
경제활동참가율	63.0	63.3	63.1	62.9	63.3	63.1
취업자	26,651	26,988	26,820	26,730	27,166	26,948
(증가율)	0.5	0.2	0.4	0.3	0.7	0.5
(증감수)	142	48	95	79	178	129
실업자	1,143	1,008	1,076	1,170	1,002	1,086
실업률	4.1	3.6	3.9	4.2	3.6	3.9
고용률	60.4	61.0	60.7	60.3	61.1	60.7
비경제활동인구	16,320	16,253	16,287	16,455	16,322	16,388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2018. 10), 「경제전망보고서」.

[그림 17]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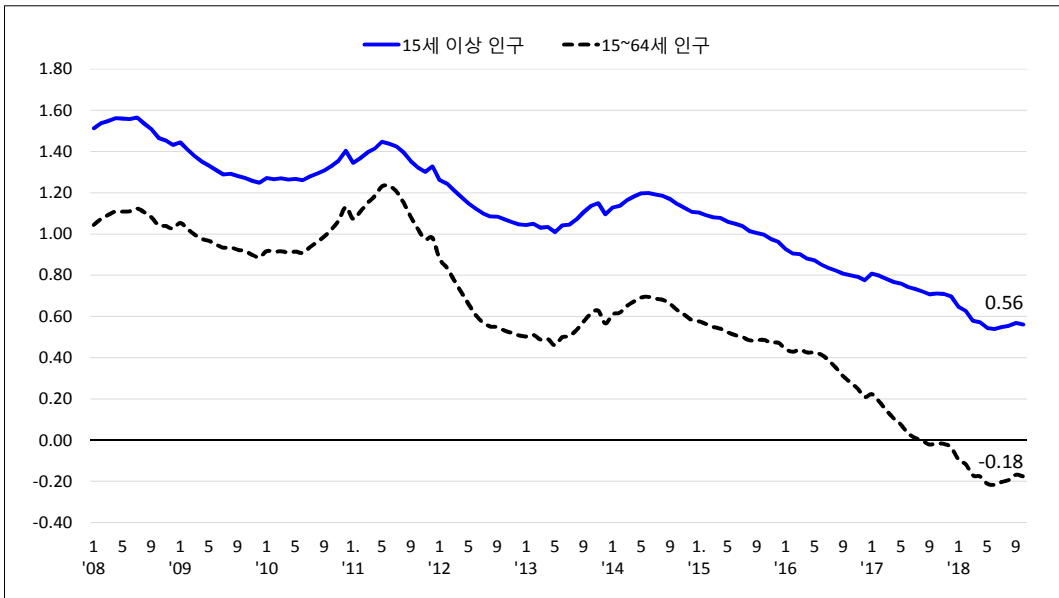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18] 15세 이상 인구 및 15~64세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방향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 포용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격차 완화,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 인구감소 시대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가 그런 예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실업의 경우 25~29세 고용률이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 격차 확대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는 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경력단절이 크게 나타나던 35~44세 기혼 여성 고용률이 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결국 장시간 근로문화의 해결인 만큼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KLI**



〈부표 1〉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p)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전체	전 체	60.6	60.8	60.5	60.8	60.7	-0.1
	15~19세	8.0	8.4	8.0	8.7	7.5	-1.2
	20~24세	46.1	45.3	46.1	45.5	43.8	-1.7
	25~29세	69.5	68.7	69.7	68.8	70.0	1.2
	30~34세	74.7	74.7	74.6	74.6	75.4	0.8
	35~39세	74.7	75.8	74.5	75.7	75.9	0.2
	40~44세	78.1	77.5	78.1	77.5	77.4	-0.1
	45~49세	80.3	81.1	80.3	81.1	80.3	-0.8
	50~54세	77.7	78.1	77.6	78.0	77.6	-0.4
	55~59세	70.9	72.6	70.8	72.4	72.7	0.3
	60~64세	59.7	60.6	59.4	60.6	59.4	-1.2
	65~69세	44.8	45.5	44.8	45.4	46.2	0.8
	70세 이상	23.6	23.7	23.6	23.8	24.3	0.5
남성 (여성)	전 체	71.2 (50.3)	71.2 (50.8)	71.2 (50.3)	71.2 (50.8)	70.9 (50.9)	-0.3 ( 0.1)
	15~19세	7.2 ( 8.8)	7.6 ( 9.3)	7.3 ( 8.7)	7.9 ( 9.5)	6.5 ( 8.6)	-1.4 (-0.9)
	20~24세	40.7 (50.5)	39.9 (49.7)	40.8 (50.6)	40.1 (49.9)	38.0 (48.5)	-2.1 (-1.4)
	25~29세	69.7 (69.3)	67.9 (69.6)	70.1 (69.2)	67.8 (69.9)	69.5 (70.6)	1.7 ( 0.7)
	30~34세	88.3 (59.9)	87.3 (61.0)	88.4 (59.7)	87.2 (60.9)	87.3 (62.4)	0.1 ( 1.5)
	35~39세	91.9 (56.5)	92.7 (58.1)	91.7 (56.5)	92.6 (57.9)	91.6 (59.2)	-1.0 ( 1.3)
	40~44세	92.9 (62.9)	92.7 (61.8)	92.8 (62.9)	92.7 (61.8)	92.2 (62.2)	-0.5 ( 0.4)
	45~49세	92.0 (68.5)	92.4 (69.7)	91.9 (68.5)	92.5 (69.5)	91.6 (68.7)	-0.9 (-0.8)
	50~54세	89.3 (65.9)	89.7 (66.3)	89.2 (65.7)	89.6 (66.2)	88.6 (66.6)	-1.0 ( 0.4)
	55~59세	84.4 (57.6)	85.7 (59.6)	84.2 (57.6)	85.6 (59.4)	85.3 (60.2)	-0.3 ( 0.8)
	60~64세	71.7 (48.1)	73.3 (48.4)	71.3 (48.1)	73.5 (48.3)	72.0 (47.2)	-1.5 (-1.1)
	65~69세	56.3 (34.9)	57.6 (35.3)	56.4 (34.9)	57.1 (35.3)	57.8 (35.4)	0.7 ( 0.1)
	70세 이상	32.3 (17.7)	31.2 (18.6)	32.3 (17.8)	31.4 (18.6)	31.5 (19.5)	0.1 ( 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2017	2016. 1~10월	2017. 1~10월	2018. 1~10월
전 산업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26,380 (100.0)	26,708 (100.0)	26,804 (100.0)
농림어업	1,337 (5.1)	1,272 (4.8)	1,279 (4.8)	1,291 (4.9)	1,291 (4.8)	1,348 (5.0)
광업	14 (0.1)	19 (0.1)	23 (0.1)	19 (0.1)	23 (0.1)	20 (0.1)
제조업	4,604 (17.6)	4,584 (17.4)	4,566 (17.1)	4,591 (17.4)	4,560 (17.1)	4,514 (16.8)
전기·가스·증기	79 (0.3)	76 (0.3)	72 (0.3)	76 (0.3)	72 (0.3)	71 (0.3)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105 (0.4)	113 (0.4)	115 (0.4)	113 (0.4)	115 (0.4)	126 (0.5)
건설업	1,854 (7.1)	1,869 (7.1)	1,988 (7.4)	1,850 (7.0)	1,977 (7.4)	2,022 (7.5)
도매 및 소매업	3,816 (14.6)	3,754 (14.2)	3,795 (14.2)	3,752 (14.2)	3,797 (14.2)	3,724 (13.9)
운수 및 창고업	1,429 (5.5)	1,426 (5.4)	1,405 (5.3)	1,428 (5.4)	1,403 (5.3)	1,403 (5.2)
숙박 및 음식점업	2,195 (8.4)	2,291 (8.7)	2,288 (8.6)	2,283 (8.7)	2,289 (8.6)	2,245 (8.4)
정보통신업	774 (3.0)	783 (3.0)	783 (2.9)	779 (3.0)	783 (2.9)	830 (3.1)
금융 및 보험업	799 (3.1)	803 (3.0)	794 (3.0)	801 (3.0)	790 (3.0)	841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2 (1.8)	483 (1.8)	540 (2.0)	478 (1.8)	540 (2.0)	525 (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55 (4.0)	1,101 (4.2)	1,092 (4.1)	1,100 (4.2)	1,092 (4.1)	1,095 (4.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331 (5.1)	1,391 (5.3)	1,374 (5.1)	1,391 (5.3)	1,374 (5.1)	1,316 (4.9)
공공행정·국방	948 (3.6)	1,004 (3.8)	1,058 (4.0)	1,002 (3.8)	1,051 (3.9)	1,110 (4.1)
교육서비스업	1,835 (7.0)	1,862 (7.1)	1,907 (7.1)	1,854 (7.0)	1,910 (7.2)	1,845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1,781 (6.8)	1,861 (7.1)	1,921 (7.2)	1,853 (7.0)	1,916 (7.2)	2,034 (7.6)
예술·스포츠·여가	428 (1.6)	407 (1.5)	428 (1.6)	403 (1.5)	425 (1.6)	444 (1.7)
협회·단체·수리·기타	1,232 (4.7)	1,224 (4.6)	1,222 (4.6)	1,229 (4.7)	1,223 (4.6)	1,236 (4.6)
가구내 및 자가	82 (0.3)	70 (0.3)	64 (0.2)	71 (0.3)	65 (0.2)	49 (0.2)
국제 및 외국기관	19 (0.1)	16 (0.1)	12 (0.0)	17 (0.1)	12 (0.0)	7 (0.0)

주 : ( ) 안의 수치는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